



## 연합뉴스 파업, 새 역사를 쓰며...

※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로 20일을 맞았다. 23년 전 첫 파업이 19일간 진행됐으니 연합뉴스 파업사의 새로운 기록이 시작한 셈이다. 파업 20일을 즈음해 조합원 6명이 모여 이번 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자는 연차와 부서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

사회.정리: 김동규(연합뉴스TV 정치부 파견.2008년 입사)

기록: 김연정(사회부.2008년12월)

대담자: 고흥규(산업부.1995년), 고동선(한민족센터.2000년), 성의경(IT개발부.2004년), 김정은(국제뉴스2부.2005년), 이지현(사회부.2008년), 박초롱(국제뉴스4부.2011년)



는 주제였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근무하는 선후배들이 아래 기수부터 시작해 이 문제에 대해 들고 일어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기만 할 수 없었다. 우리가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볼 수만 없어서 파업 첫날부터 부서원 전원이 참여했다. 3월분 월급이 깎여 나왔고 4월이면 더 심해지고 5월이면 압박감이 더 심해질텐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더 월급을 받아야 하는 회사의 존립 근거 자체가 위험하니까 당장 불편해도 참고 이겨내자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자: 파업이 벌써 20일째 접어들었다. 각자 어떤 마음으로 파업을 시작했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느낀 것과 얻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먼저 어떤 생각으로 파업에 참여했는지가 궁금하다.



**“후배들이 시작한 성명전에 희망 느껴”  
“잘못된 과거 바로잡으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게 순리”(김정은)**

-김정은: 우리 기사가 불편부당한지를 자성하는 목소리는 파업 전부터 있었지만, 매번 우리끼리 얘기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후배들이 공정보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성명을 내고 선배들도 성명전에 적극 가세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부당한 현실에 침묵해오던 것이 드디어 깨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희망을 느꼈다.

노조가 연가투쟁을 시작하며 내 걸었던 ‘박정찬 사장 연임반대’라는 기치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우리 중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기사를 써온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기자가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연가투쟁에 참여했고 파업에도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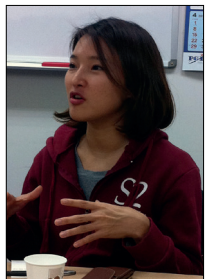
-고동선: 공정보도를 내건 파업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의명분을 찾아 고민한 끝에 마음을 굳히고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페이스북에 투쟁 영상도 올리고 심정을 간단히 올렸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들로 부터 많은 격려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열심히 하셔서 공정보도 이루세요’, ‘지지합니다’ 등의 문자를 보며, 이번 파업이 국민에게 연합뉴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 생각이 들었고 대의명분을 얻었다. 연합뉴스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실망주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파업에 임하고 있다.

-성의경: 파업 참여 직전 부서원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내 민주화 역행, 인사 전횡 문제가 거론됐지만, 가장 큰 게 공정보도 문제였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서다 보니 솔직히 일선 기자들보다 피부로 와 닿진 않

**“회사에 가장 오래 남을 막내 기수..파업으로 가장 큰 영향 받을 것”(박초롱)**

-박초롱: 파업을 처음 경험해서 그런지 연가투쟁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이 확 모이는 것을 보면서 감동 받았다. 이 정도로 뭉친 마음이라면 사장도 오래 못 버티고 3월 안에 싸움이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제일 막내 기수지만 또 회사에 제일 오래 남을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우리 기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회사니까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

-사회자: 그동안 파업 기간을 통해 깨닫고 느낀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던 순간이 있다면 말해달라.



**“연가투쟁 첫날, 추위에도 집회장 가득 모인 선후배들 잊을 수 없어”(이지현)**

-이지현: 연가투쟁 첫날 공덕동 뉴스통신진흥회에 모인 날을 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 반신반의하며 집회 장소로 나갔는데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다. 이런 현장에서 만나는 게 생소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안도감, 동질감을 느꼈고 뿌듯함이 밀려왔다. 세련되지 않은 엉성한 집회 진행을 보며 남들이 볼까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가 참 순수하다고도 느꼈다.

파업을 결의했던 총회 당일도 기억에 남는다. 혹여 성원이 부족해 총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어쩔까 불안해하며 선배들에게 연락해 참여를 독려했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오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 노조 믿고 따르자”는데 의견이 모였던 순간이 감동적이었다.

-고동선: 총회가 열리는 회사 8층에서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부서 특성상 대외 행사에 참석해 사장이 의견 받던 모습만 봤는데, 나로서 앞으로 회사에서 일하며 다시는 그런 장면은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 1면에 이어



**“불공정보도 특보’ 내며 가슴 아파..비방 목적 아닌 자기 고백의 기회”(고형규)**

-고형규: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로서 불공정보도 특보를 내고 있다. 원망과 항의도 많이 받았고 사례로 거론된 기사의 당사자들이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나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다. 특보를 내며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이 작업은 누구를 비방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부족함에 대한 자기 고백과 반성의 기회를 얻자는 의미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사회자: 20일간 이어진 파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동선: 전 직장에서는 노조가 설립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사측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뚝뚝 뚫어 노조설립을 이뤄내는 걸 봤다. 그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사내 결혼을 했다. 요즘 아내에게 우리 회사 파업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장난하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집엔 왜 오냐. 사장실에서 밤새고 그래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난 우리 회사는 다르다고 해명하기 바쁘다. 파업하면서 연합 구성원들이 정말 착하고 순수하다는 걸 많이 느낀다.

우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데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행사 취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회사 위상을 걱정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조원들의 회사를 아끼는 진심을 느꼈고 순수함을 확인했다.

파업도 참 착하고 암전하게 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순수함을 지켜나가면 원하는 바를 어떤 식으로든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파업의 개인적인 성과라면 잘 모르던 다른 직군의 선후배들과 사귀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업이 끝나도 “그때 고생 많았어”라며 서로 어깨 토닥이며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게 회사의 엄청난 동력이자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한다.

-성의경: 고 선배 마지막 말에 동의한다. 개발부서이다 보니 편집부서와는 얼굴은 알지만 선배인지 후배인지,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파업이라는 기회를 통해 소통하게 됐다. 계기가 파업이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소통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파업 중 가슴 뭉클했던 건 공병철 선배의 모습이였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총회 자리에서 사장과 마주하는 모습이나 출근 저지 투쟁 시 맨 앞에서 사장과 이야기하는 눈빛을 보며 가슴 뭉클했다. 앞에 섰던 다른 선배들도 마찬가지다. 이 선배들 믿고 따라도 손해 볼 게 없겠구나, 연합뉴스 바로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자성하는 시간.. 나도 연합뉴스도 달라질 것”(김정은)**

-김정은: 입사 이래 언론·회사가 무엇인가,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사를 쓰고 행동할지를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한 시간이였다. 그동안 쉐러리맨처럼 관성적이고 기계적으로 기사를 써온 건 아닌지 자성하고 자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파업이 어떤 식으로 끝나건 앞으로 나는 달라질 것 같다. 다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그동안 관료적인 부분도 바뀔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연합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다. 파업을 통해 우리가 이제까지 잃었던 것, 없었던 것을 많이 얻었다고 본다. 파업 시작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지현: 덧붙이자면, 파업을 통해 깨져야 할 것들은 확실하고 처절히 깨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정보도 문제에 있어선 선배의 지시, 윗선의 지시라도 ‘그건 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자: 지난 3년 동안 부당한 지시 등에 무뎌지고 무력감을 느꼈다는 고백을 꽤 많은 선후배들이 하는 것 같다. 이번 파업을 통해 각자가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된 것 같고 언론인으로서의 초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 것 같아 파업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고동선: 120% 공감한다. 파업이 끝나고서도 이걸 끝이 없는 싸움이라 생각한다. 공정보도나 사내민주화는 사실 계량할 수 없어서 연합뉴스가 존재하

는 한 이 문제는 끝까지 가져가야 할 화두다. 시간이 지나고 외부환경이 변하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소리를 내는 선례를 만들고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의경: 저도 200% 이상동감한다. 일부 선배들이 박 사장의 퇴임여부를 떠나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말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가 공정보도에 대해 자기성찰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박초롱: 개인적으로 파업을 통해 선배들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다. 다른 의견과 생각에도 끝까지 이야기하며 갈라지거나 분열되지 않고 ‘우리’를 지켜가더라. 입사 후 타사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 문화와 분위기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언론사는 경쟁이 심한 구조여서 정보보고나 취재원 공유도 잘 안 되는 곳도 있던데 연합은 선후배 간에 돈독한 신뢰와 정이 있어서 좋았다. 파업이 마무리되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계속돼 온 연합의 이런 문화는 이어졌으면 좋겠다.

-사회자: 집행부와 노조원이 모두 그런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가 갖고 있을 것 같다. 파업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이나 걱정되는 것들은 없나.

-성의경: 사측에서 벌써 직접 언급하고 나섰는데, 앞에서 투쟁하고 후배를 이끄는 집행부와 대의원 선후배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후배들이 집행부를 지켜줘야 하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길 바란다.



**“파업은 회사를 위한 것.. 파업 후 선후배간 ‘골’ 없길”(고동선)**

-고동선: 파업을 마치고 부서에 돌아가 처음 부장과 국장을 보면 서먹함이 있을 것 같다. 서먹함이 어떤 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장 위해 일해온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 일해왔고, 지금도 회사를 위해 파업한다고 생각한다. 선후배간에 골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성의경: 파업 기간에 출산한 후배가 있다.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급여가 안 나오니 곤란해하더라. 주위에서는 생계가 힘들 정도면 잠시 파업에서 빠져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내가 믿고 시작한 일”이라며 파업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겠다고 하더라.

파업이면 늦잠자고 아침에 늦게 나와도 될 줄 알았는데 출근 저지 투쟁 때문에 출근 시간도 똑같고, 요즘 파업 일정이 일찍 끝나는데 집에 가도 할 게 별로 없다..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빨리 일터 돌아가고 싶다. (웃음)

-고동선: 의자에 앉아서 일하다가 사장실 앞이나 서관 8층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려니 허리가 많이 아프다. (모두 고개 끄덕임) 일상으로 돌아가면 출근 시간 맞추는 것도 걱정이다.

-박초롱: 어제 오랜만에 작성장을 열어봤는데 벌써 조금 생소한 느낌이어서 업무 복귀 후가 걱정되더라. (웃음)

-고형규: 술.담배가 오히려 는 것 같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 연봉사원들 울타리가 돼야”(성의경)**

-성의경: 마지막으로 파업이 끝난 이후 노조가 꼭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 노조 가입과 동시에, 노조회비 1%조차 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약점이 노출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파업에 뛰어들어온 사람들 바로 연봉사원들이다.

그 누구보다도 파업참여에 대한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상당수의 인원이 참여한 것에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절실함,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노조는 그들의 입장과 불편부당한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것이다.

이밖에 파업이 계속돼 4월25일에 통장에 급여 ‘0원’이 찍히면 노조원이 파업을 접자고 할지, 투쟁의지가 더 강해질지 궁금하다면서 더 화가 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고 공정보도 문제 외에도 사내민주화나 인사 전형 문제에 대해서도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